

소음인의 口中和, 口中不和의 의미에 대한 고찰

김태영¹ · 박성식^{2*}

¹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전문수련의, ²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수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Soeumin's Softness and Non-softness in the mouth

Tae-Yeong Kim · Seong-Sik Par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Soeumin's Softness and Non-softness in the mouth(口中和, 口中不和).

Methods

We examined The Existing Doctors's using of the Softness and Non-softness in the mouth, and considered Jema Lee's using of the Softness and Non-softness in the mouth. Afterward, we considered the meaning of the Soeumin's Softness and Non-softness in the mouth in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Results and Conclusion

1. Junggyeong Jang used the Softness in the mouth, and he didn't use the Non-softness in the mouth in 『Sanghanlun(傷寒論)』.
2. The Next Generation Doctors used the Softness in the mouth, and they didn't use the Non-softness in the mouth. Especially, Dongwon Lee used the Softness in the mouth as the Knowing the taste of food, and used the Non-softness in the mouth as the Non-knowing the taste of food.
3. Jema Lee used the Softness and Non-softness in the mouth as urgent indicator of the Soeumbyeong diarrhea in 『Gabobon(甲午本)』, and used the Softness and Non-softness in the mouth as classification indicator of the Taeumbyeong and Soeumbyeong in 『Sinchuckbon(辛丑本)』.
4. The Non-softness in the mouth is Jema Lee's specific term. It means dry of mouth, thirsty and the Non-knowing the taste of food.
5. The change from the Non-softness to Softness in the mouth is recovery indicator of the Soeumin's disease. It is the basis for setting the Drinking water(能飲水) as the Soeumin's igiljeung(二吉證).

Key Words: The Non-softness in the mouth, The Softness in the mouth, Soeumin, Soeumbyeong, Taeumbyeong.

I. 緒論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口中和, 口中不和는 소음인의 병증을 구성하는 태음병과 소음병을 구분하는 지표이다. 태음병과 소음병은 공통적으로 설사와 복통이 나타나는데, 태음병은 無口渴 口中和, 소음병은 口渴 口中不和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¹⁾ 口中和는 입 안이 조화롭다, 입 안이 부드럽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고, 口中不和는 입 안이 조화롭지 않다, 입안이 부드럽지 않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口中和와 口中不和에 대한 글자 그대로의 해석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사상의학 교과서에서는 口中和를 ‘입 안이 부드럽다.’²⁾로 해석하였고, 口中不和를 ‘입 안이 부드럽지 못하다.’³⁾, ‘구 중이 깔깔하다.’⁴⁾ 등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다.

口中和는 장중경이 『傷寒論』 『少陰病』에서 처음 언급하였는데, “소음병을 얻은지 1~2일에 口中和하고, 등에 오한이 있으면 마땅히 구법과 부자탕을 사용한다.”⁵⁾고 하였으나, 口中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이후 주석가들은 口中和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성무기는 “口中이 和한 것은 苦하거나 燥하지 않으며 열이 없는 것이다.”⁶⁾라고 하였고, 채⁷⁾, 왕⁸⁾, 김⁹⁾ 등은 口中和에 대해 不苦, 不燥, 不乾, 不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口中和를 不苦, 不燥, 不乾, 不渴 등의 의미로 본다면,

口中不和는 口苦, 口燥, 口乾, 口渴의 의미가 되어, 이제마가 태음병과 소음병의 구분 지표로 제시한 無口渴과 口中和, 口渴과 口中不和는 같증이라는 의미를 중복하여 사용한 면이 생긴다. 사상의학계는 이에 대한 임상적인 해석을 진료지침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임상진료지침 태음병편¹⁾에서는 “口中和는 입 안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없거나 식욕이 저하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였지만, 소음병편²⁾에서는 口中不和를 소음병의 주요 증상으로 보고 있으나 口中不和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음인의 태음병과 소음병을 구분하는 지표인 口中和와 口中不和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음인의 병증에서 태음병과 소음병을 구분하는 것은 병증의 완급, 치료의 방향, 경과와 예후 등의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태음병과 소음병의 구분 지표인 口中和와 口中不和의 의미와 임상적 활용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소음인의 생리, 병리적 특징을 바탕으로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소음인의 口中和와 口中不和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II. 研究方法

『傷寒論』, 『活人書』, 『東垣十書』, 『東醫寶鑑』을 통해 기존 의가들의 口中和, 口中不和 용례를 살펴보고,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소음인의 口中和, 口中不和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문에 나타난 口中和, 口中不和는 한글로 해석하지 않고, 모두 한자로 표기하였다.

1) 『傷寒論』은 한의문화사에서 2011년 출판한 상한론 교과서인 『傷寒論精解』³⁾를 저본으로 하였다.

- 1)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凡腹痛自利 無口渴 口中和者 爲太陰病 腹脹自利而有口渴 口中不和者 爲少陰病...”
-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 교실. 개정증보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2004. p555.
- 3) 위의 책, p555.
- 4) 위의 책, p565.
- 5) 『傷寒論』 『少陰病』 “少陰病 得之一二日 口中和 其背惡寒者 當灸之 附子湯主之.”
- 6) 이종화. 집대성 상한론주석. 서울: 계축문화사. 1995. p638에서 재인용.
- 7) 채인식. 상한론 역전. 서울: 고문사. 2000. p214.
- 8) 왕기. 상한론강해. 하남: 하남과학기술출판사. 1988. p307.
- 9) 이종화. 집대성 상한론주석. 서울: 계축문화사. 1995. p638에서 재인용.

- 2) 『活人書』는 한미의학에서 2010년 출판한 『活人書』⁴를 저본으로 하였다.
- 3) 『東垣十書』 속의 『內外傷辨惑論』, 『此事難知』는 대성문화사에서 1996년 출판한 『東垣十種醫書』⁵를 저본으로 하였다.
- 4) 『東醫寶鑑』은 동의보감 출판사에서 2016년 출판한 『對譯 東醫寶鑑』⁶을 저본으로 하였다.
- 5)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은 집문당에서 2004년 출판한 사상의학 교과서인 『改訂增補 四象醫學』⁷을 저본으로 하였다.
- 6)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은 木과土에서 2002년 출판한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⁸을 저본으로 하였다.

III. 本論

1. 기존 의서에 나타난 口中和와 口中不和

1) 『傷寒論』

장중경은 『傷寒論』에서 口中和를 언급하였고, 口中不和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口中不和와 유사한 口不仁을 언급하였다.

口中和는 『少陰病』에서 “소음병을 얻은지 1~2일이 되어 口中和하고, 등이 냉한 것은 구법과 부자탕을 쓴다.”¹⁰고 하여 언급된다. 口中和에 대해 상한론 교과서³에서는 입이 쓰지 않고, 燥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大塚敬節⁹은 “口中和는 口中이 乾燥하지 않고 평소와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였고, 李春深¹⁰은 “口中不苦, 不燥, 不渴을 口中和라 하며 속에 邪熱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傷寒論』의 口中和에 대해 주석가들은 不苦, 不燥, 不乾, 不渴 등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口不仁은 『陽明病』에서 “삼양합병으로 복부가 창만하고 신체가 침중하며 돌아눕기 어렵고, 口不仁하며, 얼굴에 기름 때가 낀 것 같고...백호탕을 사용한다.”¹¹고 하여 언급된다. 口不仁에 대해 상한론 교과서³에서는 언어가 불리하고 음식의 맛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채인식¹¹은 熱邪가 上攻하여 입이 마르고 설태가 燥澀하여 언어도 不利하고 食物의 맛을 잘 모른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口中和를 不苦, 不燥, 不乾, 不渴 등의 의미로 본다면, 口不仁은 口中和와 상대되는 口中不和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活人書』

주광은 『活人書』에서 口中和를 언급하였고, 口中不和는 언급하지 않았다.

口中和는 소음병에서 언급되는데, “소음병에 입이 건조하고 혀가 마르면 급히 하법을 사용하는데 대승기탕이 마땅하다. 만약 갈증이 없고 입이 건조하고 혀가 마르지 않으며 맥이 침세하면 급히 온법을 사용하는데 사역탕이 마땅하다...소음병 1~2일에 입이 조화롭고 등에 오한이 있으면 마땅히 구법을 사용하고 부자탕을 병용한다.”¹²라고 하였다. 소음병에 온법으로 사역탕과 부자탕을 사용하는데, 사역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不渴 不口燥舌乾’한데, 부자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口中和’라 표현하여, 口中和는 갈증이 없고, 입이 건조하고 혀가 마르는 증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東垣十書』

이동원은 『東垣十書』 중 『內外傷辨惑論』에서 口中和를 언급하였고, 口中不和는 언급하지 않았

10) 각주 5)와 동일.

11) 『傷寒論』 『陽明病』, “三陽合病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 面垢...白虎湯主之.”

12) 『活人書』 『卷第一 問傷寒五六日 尺寸脈俱沈 或口燥舌乾而渴 或口中和而惡寒』, “...少陰病 口燥舌乾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若不渴 不口燥舌乾 而脈沈細者 急溫之 宜四逆湯...少陰病 得之一二日 口中和 其背惡寒者 宜着灸 并附子湯也...”

으며, 왕호고는 『東垣十書』 중 『此事難知』에서 口中和를 언급하였고, 口中不和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동원은 口中和를 惡食과 관련된 것으로 언급하였는데, “중경이 『傷寒論』에서 말하기를 중풍은 능히 밥을 먹을 수 있고, 상한은 밥을 먹을 수 없는데, 이 둘은 모두 口中和하고 惡食하지 않는다. 勞役, 飲食失節, 寒溫不適의 세 가지는 모두 惡食하고 오미를 알지 못 하며 오곡의 맛도 알지 못한다. 단지 이 한 가지를 관별하여 내외의 유여, 부족증을 구분하기에 충분하다.”¹³⁾라고 하였다. 또한 “상한증은 비록 밥을 먹지 못하더라도 惡食하지 않고, 口中和하며 오미를 알고, 오곡의 맛도 안다. 內證이 없으며 心氣가 조화롭고 脾氣가 통하여 오곡의 맛을 아는 것이다.”¹⁴⁾라고 하여, 口中和는 ‘知五味 知穀味’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원은 口中和와 口失穀味를 대비되는 의미로 언급하여 내상과 외감의 감별 지표로 사용하였는데, “飲食과 勞役으로 상하면 외증은 입에서 나타나고 반드시 곡미를 잃고 배가 조화롭지 않으며...風寒에 상하면 외증은 반드시 코에 나타나고 鼻氣가 불리하고 소리가 탁탁하며 맑지 않고 말소리가 웅색하고 힘이 있으며 口中和하다.”¹⁵⁾라고 하였다. 또한 “내경에서 말하기를...脾氣는 입으로 통하여 飲食失節, 勞役으로 상하면 곡미를 알지 못 하고, 오미도 알지 못한다.”¹⁶⁾라고 하여 口中和와 대비된 의미로 ‘不知穀味 不知五味’를 사용하였다.

왕호고는 口中和를 소음증에서 언급하였는데,

13) 『內外傷辨惑論』 「辯外傷 不惡食 若勞役 飲食失節 寒溫不適 此三者 皆惡食」 “仲景傷寒論云 中風能食 傷寒不能食 二者 皆口中和 而不惡食 若勞役所傷 及 飲食失節 寒溫不適 三者 俱惡食 口不知五味 亦不知 五穀之味 只此一辯 足以分內外有餘不足二證也...”

14) 『內外傷辨惑論』 「辯外傷 不惡食 若勞役 飲食失節 寒溫不適 此三者 皆惡食」 “...傷寒證 雖不能食 而不 惡食 口中和 知五味 亦知穀味 皆無內證 則心氣和脾 氣通 知五穀之味矣...”

15) 『內外傷辨惑論』 「辯口鼻」 “若飲食勞役所傷 其外證 在口 必口失穀味 必腹中不和...外傷風寒 則其外證 必顯在鼻 鼻氣不利 聲重濁 不清利 其言壅塞 氣盛有力 而口中和...”

16) 『內外傷辨惑論』 「辯口鼻」 “...內經云...脾氣通於口 飲食失節 勞役所傷 口不知穀味 亦不知五味...”

“입 안이 조화로우면 온법을 사용하고, 입이 건조하면 하법을 사용한다.”¹⁷⁾고 하여, 口中和와 口乾燥를 대비하여 사용하였다.

4) 『東醫寶鑑』

허준은 『東醫寶鑑』에서 口中和를 언급하였고, 口中不和는 언급하지 않았다.

口中和는 『寒(上)門 少陰形證用藥』에서 나타나는데, “소음병 1~2일에 口中和하고 등에 오한이 있으면 마땅히 구법과 부자탕을 사용한다.”¹⁸⁾라고 하여 <중경>의 문장 속에서 나타나고, “소음증에 입 속을 변별하여, 口中和하면 온법을 사용하고, 입이 건조하면 하법을 사용한다.”¹⁹⁾고 하여 <동원>의 문장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허준은 口中和와 口乾燥이 대비를 사용하여 소음병의 치법을 선택하는 구체적 근거로 활용하며, 口中和하면 온법을, 口乾燥하면 하법을 사용하였다.

2.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口中和와 口中不和

1) 『甲午本』

이제마는 『甲午本』에서 口中和와 口中不和를 언급하였다.

口中和와 口中不和는 『少陰人 內觸胃病論』의 소음병 설사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口中和하면 병세가 완만하고, 口中不和하면 병세가 급하다.”²⁰⁾고 하여, 소음병 설사의 완급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17) 『此事難知』 「卷上太陽六傳 少陰證」 “口中和者 當溫 口乾燥者 當下.”

18) 『東醫寶鑑』 「寒(上)門 少陰形證用藥」 “少陰病一二日 口中和 背惡寒 當灸之 宜附子湯<仲景>”

19) 『東醫寶鑑』 「寒(上)門 少陰形證用藥」 “少陰證 口中辨 口中和者 當溫 口乾燥者 當下<東垣>”

20) 『少陰人 內觸胃病論』 “今考更定 已上諸證 即少陰人 內守胸膈胃中之胃氣虛弱 冷氣內侵下利不止之證也 此證 口中和者 其勢緩 口中不和者其勢急...”

이제마는 태음병과 소음병을 구분하는 지표로는 口中燥와 口中不燥를 사용하였는데, “소음인 胸膈의 증상은 마땅히 口와 心을 살펴야 하는데, 입이 마르지 않고 답답함이 없으면 태음증이고, 입이 마르고 답답하면 소음증이다. 臍腹의 증상은 마땅히 대변을 살펴야 하는데, 하리황수는 태음증이고, 하리청수는 소음증이다.”²¹⁾라고 하여 口中燥와 함께 心煩, 설사의 성상을 언급하였다.

2) 『辛丑本』

이제마는 『辛丑本』에서 口中中和와 口中不和를 언급하였다.

口中中和와 口中不和는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에서 나타나는데, “복통과 설사를 하면서 口渴이 없고 口中中和하면 태음병이고, 복통과 설사를 하면서 口渴이 있고 口中不和하면 소음병이다.”²²⁾라고 하여, 태음병과 소음병을 구분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또한 口中中和와 口中不和는 “소음인 병의 설사 초기에 心煩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心煩이 있으면 口渴이 있고 口中不和하고, 心煩이 없으면 口渴이 없고 口中中和하다.”²³⁾고 하여, 소음인의 설사에 대해 心煩과 心不煩에 따라 口渴과 함께 살펴야 하는 지표로 제시되었다.

口中中和는 소음인의 하리청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고의 『東垣書』에서 말하기를, 소음증에 입 속을 변별하여 口中中和하면 온법을 사용하고, 입이 건조하면 하법을 사용한다.”²⁴⁾라고 하여, 이제마는

口中中和와 口中乾燥를 함께 사용하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IV. 考察

1.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口中中和, 口中不和의 활용 범위

이제마는 『甲午本』에서 태음병과 소음병을 口中不燥와 口中燥로 구분하였고, 소음병 설사의 병세를 판단하는 지표로 口中中和, 口中不和를 활용하였다. 『辛丑本』에서는 태음병과 소음병을 구분하는 지표로 無口渴과 口中中和, 口渴과 口中不和를 활용하였다.

이제마는 『甲午本』에서 태음병과 소음병을 口中不燥와 口中燥로 구분하였는데,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지표로 心煩, 설사의 성상을 언급하였다. 『少陰人 腎胃病篇尾 泛論』에서는 “설사를 하면서 갈증이 없으면 태음병이고, 설사를 하면서 갈증이 있으면 소음병이다.”²⁵⁾라고 하여 태음병과 소음병을 渴과 不渴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태음병과 소음병의 구분 지표로 口中燥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 口渴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설사가 주증상인 경우, 설사로 인한 탈수 정도를 통해 경증과 완급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口渴을 지표로 삼은 것이고, 설사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소음인의 리병의 경증과 완급을 판단할 때에는 胸膈之證과 臍腹之證으로 나누어 口中燥와 함께 心煩, 설사의 성상을 지표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辛丑本』에서는 태음병과 소음병을 無口渴과 口中中和, 口渴과 口中不和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설사가 주증상인 경우, 설사로 인한 탈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口渴 지표와 함께 口中不和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辛丑本』에서는 소음인의

21) 『少陰人 內觸胃病論』, “少陰人 胸膈之證 當觀於口與心也 口中燥心不煩 則太陰證也 口中燥心煩 則少陰證也 臍腹之證 當用觀於大便也 下利黃水 則太陰證也 下利青水 則少陰證也”

22)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凡腹痛自利 無口渴 口中和者 爲太陰病 腹痛自利而有口渴 口中不和者 爲少陰病...”

23)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凡觀少陰人病泄瀉初證者 當觀於心煩與不煩也 心煩則口渴而口中 不和也 心不煩則口不渴而口中 和也...”

24)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李杲東垣書曰 少陰證 口中辨 口中和者 當溫 口中乾燥者 當下...”

25) 『少陰人 腎胃病篇尾 泛論』, “...自利而不渴者 爲太陰病 自利而渴者 爲少陰病...”

리병의 모든 세부 병증에서 설사가 나타나는데, 소음인 리병에서 경중과 완급을 판단할 때는 心煩과 설사의 횟수, 설사의 성상을 구분 지표로 설정하였고, 心煩, 心不煩과 함께 口渴과 口中和, 口不渴과 口中和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소음병 설사에서는 口中和와 口中不和를 통한 완급의 구분 내용이 사라졌는데, 이는 『辛丑本』에서 소음병 설사를 하리와 하리청수로 병증의 카테고리를 구분하면서, 설사의 성상을 통해 병의 경중을 더욱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口中和와 口中不和를 지표로 삼을 필요성이 적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甲午本』과 『辛丑本』을 비교하여 보면, 설사가 주증상인 경우, 『甲午本』에서는 渴과 不渴을, 『辛丑本』에서는 渴과 不渴에 더해 口中不和와 口中和의 지표를 추가하였다. 설사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인 태음병과 소음병에 초점을 맞출 때, 『甲午本』에서는 口燥와 口不燥, 『辛丑本』에서는 口中不和와 口中和로 지표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口中不和와 口燥, 口渴이 다른 의미라면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개조를 거치면서 소음인의 태음병과 소음병의 병리 기전이 달라진 것이고, 口中不和가 口燥, 口渴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면,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개조를 거치면서 소음인의 태음병과 소음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辛丑本』에서는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에서 설사를 주증상으로 언급할 때에는 口渴만 언급하는 경우는 없고, 口渴과 口中不和를 함께 언급하였고,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에서는 소음인의 표병인 울광, 망양과 대비하여 소음인의 리병인 태음병, 소음병을 언급하면서 口渴에 대한 언급없이 口中不和만 언급하였다.²⁶⁾ 이는 口中不和가 口燥, 口渴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소음인 리병의 완급 지표로는 口中不和를 설정하였고, 설사의 완급 지표로는 탈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口渴이 중요하나, 소음인 리병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口中不和도 함께 고려해야 될 지표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口中和와 口中不和는 『甲午本』에서 소음병 설사의 완급 지표로 활용되다가 『辛丑本』으로 개조를 거치면서 태음병과 소음병의 구분 지표로 활용되어, 소음인 리병에서 口中和, 口中不和의 중요도는 증가하였고,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 소음인의 口中和, 口中不和의 의미

소음인의 口中和와 口中不和는 『甲午本』에서는 소음병 설사의 완급 지표로 사용되었고, 『辛丑本』에서는 태음병과 소음병을 구분하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甲午本』에서 소음병 설사는 內守胸膈胃中之胃氣虛弱 冷氣內侵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口中和와 口中不和는 소음병 설사에서 冷氣의 정도를 파악하여 병세의 완급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辛丑本』에서 태음병과 소음병에 대해 이제마는 “장중경의 태음병, 소음병은 모두 소음인의 胃氣虛弱으로 발생하는 설사이고, 태음병 설사는 重證 중의 平證이고, 소음병 설사는 危證 중 險證이다.”²⁷⁾라고 하여 태음병과 소음병의 설사는 모두 胃氣虛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口中和와 口中不和는 胃氣虛弱의 정도를 파악하여 소음인의 설사에서 태음병과 소음병을 구분하여 병의 경중과 완급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口中和와 口中不和는 소음인의 설사에서 冷氣의 정도와 胃氣虛弱의 정도를 파악하여 병의 경중과 완급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고, 설사를 포함하는 태음병과 소음병을 구분하는 지표로 口燥와 口不燥, 口渴과 口不渴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口

26)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陽證 自汗不出而有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 鬱狂證也 自汗出而有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 亡陽證也 陰證 口中和而有腹痛泄瀉者 太陰病也 口中不和而有腹痛泄瀉者 少陰病也...”

27)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論曰 張仲景所論 太陰病 少陰病 俱是少陰人胃氣虛弱泄瀉之證 而太陰病泄瀉 重證中平證也 少陰病泄瀉 危證中險證也...”

中和는 주석가들의 해석인 不苦, 不燥, 不乾, 不渴 등의 의미에 ‘知五味 知穀味’의 의미를 더하여 생각해 볼 수 있고, 口中不和는 기존 의가들이 사용하지 않은 용어로 口苦, 口燥, 口乾, 口渴 등의 의미에 ‘不知五味 不知穀味’의 의미를 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3. 소음인의 口中和, 口中不和의 임상적 활용

소음인의 복통 설사에 口渴이 있으면 소음병이라 할 수 있는데, 갈증이 있으면 물을 먹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마는 소음인의 병이 풀리는 증상으로 能飲水를 吉證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태음병에서는 口渴이 없다가 소음병에서 口渴이 생기면 병이 심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데 비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吉證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제마는 소음인의 二吉證에 대해 “소음인 병에 2가지 길한 증상이 있는데, 인중의 땀과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다.”²⁸⁾하여 특정 지표를 통해 병이 풀리는 단계인지를 판단하여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¹²⁾는 “소음인 리증은 설사로 인하여 체액 손실이 보다 촉진되어 탈수, 전해질 장애, 순환부전 등이 중시되는 증후이다.”라고 하였으며, 能飲水에 대해 “탈수가 조장되지 않는 경우는 吉證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소음인의 二吉證은 『甲午本』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소음인의 二吉證 중 能飲水는 소음병 陰盛格陽의 번조하고 갈증이 있지만 물을 마실 수 없는 증상을 바탕으로 설정된 지표이다. 이제마는 『少陰人 內觸胃病論』에서 소음병 陰盛格陽에 대해 ‘胃氣將絕之候’라고 하여 소음인의 병증 중 險危證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二吉證으로 언급된 能飲水는 물을 마실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소음인의 胃氣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口中和와 口中不和를 바탕으로 能飲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임상에서 복통과 설사가 있으면서 口苦, 口燥, 口乾, 口渴 등이 있고 음식의 맛을 모르는 상태인 口中不和에서 不苦, 不燥, 不乾, 不渴 등이 있고 음식의 맛을 아는 상태인 口中和로의 변화는 소음인에서 胃氣의 회복, 즉 병의 회복 단계로 경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口中不和에서 口中和로의 변화와 같이 胃氣의 회복을 의미하는 能飲水를 소음인의 吉證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음인이 설사를 하는 상황에서 병의 경과와 완급을 판단하는데, 口中和와 口中不和, 能飲水 등은 실제적인 임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V. 結論

口中和와 口中不和에 대한 기존 의가들의 활용을 살펴보고,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소음인의 口中和와 口中不和에 대해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장중경의 『傷寒論』에서는 口中和를 소음병의 부자탕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지만, 口中不和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장중경은 口不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삼양합병의 백호탕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 口中和와 상대되는 口中不和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2. 주굉, 이동원, 왕호고, 허준 등의 후대 의가들도 口中和에 대비하여 口燥, 口乾, 口渴을 사용하였지만, 口中不和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동원은 口中和를 ‘知五味 知穀味’라 하였으며, 口中和와 ‘不知五味 不知穀味’를 대비하여 사용하여 내상과 외감의 감별 지표로 활용하였다.

28) 『少陰人 泛論』 “少陰人病 有二吉證 人中汗 一吉證也 能飲水 一吉證也.”

3. 이제마는 口中和와 口中不和를 『甲午本』에서는 태음병과 소음병을 구분하는 지표가 아니라 소음병 설사의 완급을 표현하는 지표로 활용하였고, 『辛丑本』에서는 태음병과 소음병을 구분하는 지표로 제시하여 소음인 裏病의 경중을 파악하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하였다.
4. 口中不和는 기존 의가들의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제마의 고유 용어라 할 수 있다. 소음인의 口中不和는 소음인의 설사에서 胃氣의 상태와 冷氣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을 고려하여 口苦, 口燥, 口乾, 口渴 등의 의미에 '不知五味 不知穀味'의 의미를 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5. 소음인의 口中不和는 胃氣의 허약, 冷氣의 증가를 의미하고, 口中和는 胃氣의 회복, 冷氣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口中不和에서 口中和로의 변화는 병의 회복 경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이는 이제마가 胃氣의 회복을 나타내는 지표인 能飲水를 소음인의 二吉證으로 설정한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다.

VI. Reference

1. Hwang MW, Park HS, Lee EJ.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Soeum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reater Yin Symptomatology. J Sasang Constitut Med. 2014;26(1):45-54. (Korean). DOI: 10.7730/JSCM.2014.26.1.045
2. Yu JS, Jeon SH, Lee EJ.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Soeum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Lesser Yin Symptomatology. J Sasang Constitut Med. 2014;26(1):55-63. (Korean). DOI: 10.7730/JSCM.2014.26.1.055
3. Kim DH, Kim SH, Kim YM, Kim JB, Moon JJ, Park WS et al. ShanghanlunJungHae. Kyungido: HanUi publishing Company. 2011.
4. Ju G(translation by An YM). Hwalinseo. Seoul: Hanmiuihak. 2010.
5. Lee DW, Wang HG. Dongwonsipjonguiseo. Seoul: Daeseongmunhwasa. 1996.
6. Hur J. Donguibogam. Hadong: Donguibogam publishing company. 2016.
7. Song IB, Koh BH, Lee EJ, Kim KY, Kim DR, Park SS, et al.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nd edn. Seoul: Jipmoondang. 2004.
8. Lee JM(translation by Kim DL). Dongyususebowon Gabogubon. Seoul: Mokgwato. 2002.
9. Daebong GJ(translation by Park JG). Imsangeung-yong Shanghanlunhaeseol. Seoul: Seowondang. 2001.
10. Lee CS. Shanghanlun. Tianjin: Tianjingwahakgisulchulpansa. 2018.
11. Chae IS. Shanghanlun Translation. Seoul: Kommonsa. 2000.
12. Ko H. Study on Soyinin symptoms and signs at DongYeuSuSebowon.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6;20(2):312-319. (Korean)